

일자리 만들기 시리즈 · 5

산업입지 공급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와 고용창출

- 외국인직접투자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용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
-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는 잠재력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, 최근에는 직접투자 규모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음
 - 2003년 현재 외국인투자 잠재지수 18위, 이행지수 87위를 기록(UNCTAD)
-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,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정비, 획기적 투자지원제도,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
-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방안으로는 양호한 입지조건의 외국인 전용공단, 핵심기업 유치 및 업종별 전문화된 단지공급, 임대중심의 산업입지 공급추진,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확대 등이 있음
- 천안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사례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외국인 전용공단 100만평을 개발할 경우 외국인투자 6억 2천만달러 유치와 아울러 7,400명(20대 고용 1,400명 포함) 고용창출의 직접효과가 전망됨
 - 간접고용효과(13,300명)를 감안하면 약 20,7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됨

1. 일자리 창출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효과

-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의 7.3%를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차지
 - 1990년대 후반(1997-1999) 국내 제조업 고용이 19만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고용은 5만여명 증가함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자리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
- FDI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은 질적 측면에서 내국 기업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,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용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
 - 아일랜드나 중국의 사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고용의 양적, 질적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가능성을 보여줌
- 이러한 직접효과와 더불어 FDI 기업은 후방연계효과 등을 통해 국내 관련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서,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

2.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태

- UNCTAD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998~2000년 외국인투자 잠재지수(Potential Index)가 18위임에 비해 외국인투자 이행지수(Performance Index)는 87위에 불과하여, 잠재 역량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
- 최근에는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
 - 2003년 외국인직접투자는 2002년(91.0억달러, 신고기준)에 비해 28.9% 감소한 64.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2002년과 2001년의 경우도 각각 19.4%, 25.8% 감소하였음
- 외국인투자 감소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 등에 기인하나 중국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여, 우리나라의 급격한 감소와 대조를 이룸
- 투자유형별로는 그린필드형 투자비중이 2001년도 83.1%에서 2003년도 68.7%로 감소한 반면 M&A투자 비중이 증가하여,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

3.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

-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기반 정비가 필요함
 - 노사관계의 안정, 세계 수준에 부합되는 무역정책 틀, 사회적 여건 특히 국제학교나 지역내 생활환경 등과 다른 국가에 비견할 수 있는 투자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
- 이와 더불어 기업 입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양질의 부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등도 중요함

<그림 2>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개발방향

기본방향	◦ 외국인투자기업 입지수요특성 수용 ◦ 현실적인 투자환경 마련 ◦ 진입 및 입지비용의 절감 ◦ 중앙의 역할정립과 지자체의 재량과 책임 확대 ◦ 기존 입지의 효과적 활용 ◦ 외국인 직접투자와 지역발전의 유기적 연계
입지공급 방 안	◦ 핵심기업 연계단지 조성 ◦ 업종별 전문화 단지조성 ◦ 경제특구 지정의 확대 ◦ 국가별 전용단지 공급

- 따라서, 중·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기업입지·경영환경 정비를 추진하되,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거점 지역의 육성 등을 통해, 우리나라의 잠재 역량에 부합되는 수준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이를 위해서는 첫째, 경제자유지역의 신속한 개발과 확대지정 둘째, 외국인 전용공단의 확대지정 등 저렴한 용지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FDI 기업의 유치를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직접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함
- 다만,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FDI 환경 정비와 더불어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

-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국내유치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추세 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
-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상응하는 지원을 국내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

<표 1> 주요 FDI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의 지원 사례

투자 년도	국가	투자기업	고용당 지원액(천\$/인)	투자 년도	국가	투자기업	고용당 지원액(천\$/인)
1995	브라질	Volkswagen	54~94	1997	미 국	Shintech	500
1995	영 국	Siemens	51~190	1997	미 국	Daimler Benz	100
1996	브라질	Renault	133	1998	영 국	Ford	138
1996	브라질	Mercedes-Benz	340	1998	영 국	IMR	63
1996	독 일	Dow	3,400	1998	영 국	Dupont	201
1996	이스라엘	Intel	300	1998	미 국	Toyota	69
1996	영 국	Hyundai	190	2000	캐나다	Mosel Vitelic	450
1996	영 국	LG	48	2000	이스라엘	Intel	350
1997	인 도	Ford	420	2000	미 국	Honda	105

출처: UNCTAD, 2002. World Investment Report. United Nations. p205.

<표 2> 해외이전 국내 기업의 실태 조사 결과

해외이전 방식 및 고용에의 영향 ¹⁾	◦ 국내공장 축소 기업 : 34.1% ◦ 국내공장 폐쇄 기업 : 1.2% ◦ 해외투자 후 고용축소 또는 중단 28.7% 등
국내잔류 의사 ²⁾	◦ 조건 충족시 74.3%의 기업이 해외이전을 않았을 것으로 응답 ◦ 상기 기업 중 16.3%가 산업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

자료: 1) 산업자원부(2003), 2) 국토연구원(2002)

4.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정책 방안

-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공급의 확대
 -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입지여건이 양호한 외국인전용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 - 외국인 기업은 국제적 수준의 생활편익 시설이 확보된 지역을 선호하므로, 공간적

으로 고립된 지역보다는 이러한 생활여건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 필요가 있으며

- 이를 위해서는 대도시 인근지역이나 대기업이 입지한 기존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 외국인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

○ 전문화된 단지의 개발

- 외국인투자기업은 활용의향기준으로 핵심기업 중심의 전문화단지(55.0%)나 업종별 전문화단지(51.2%)를 선호하고 있음
- 따라서, 산업단지 개발시에는 전통적인 종합형 산업단지보다는 전문화된 단지 공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
- 기술이나 지식 등의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관련 기업의 입지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됨

○ 임대중심의 산업입지 공급추진

-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분양보다는 임대(75%)를 선호함
-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서는 임대중심의 산업입지를 공급하며, 아울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분양용지의 임대 전환 등을 통해 기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

○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

-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동기를 살펴보면 한국기업과 개인적 친분(39.1%), 한국 내 기존 외국인거래기업을 통한 알선(23.9%) 등으로 나타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
- 더욱이, 천안 외국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42개 중 40개 기업이 기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기업들은 투자확대를 통해 신규 투자 못지않은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
-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투자확대를 위한 조건으로 교통관련시설(47.7%)과 산업단지(22.7%) 확충을 기대하고 있으므로, 이들이 입지한 기존 산업단지의 교통시설 확충 등과 같은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

5. 기대효과

-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
 - 천안 외국인 산업단지를 사례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개발시 고용규모는 10.7명/천평, 투자 금액은 881.9\$/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
 - 따라서 외국인 산업단지 100만평 개발시 외국인 투자 규모는 6억 2천만달러, 직접 고용효과는 7,400명(그 중 20대 고용 1,400명)에 달하며, 간접고용효과(직접고용의 1.8 배) 포함시 20,7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됨
 - 천안 외국인 산업단지와 같은 여건을 지닌 단지개발에는 약 4,200~5,7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, 전국 평균으로는 약 3,500~4,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

<표 3>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개발의 직접고용 효과

산업단지규모	외국인투자유치	고용창출	20대 고용창출	산업단지 사업비
100만평	6억 2천만\$	7,400명	1,400명	4,200억원~5,700억원

주 : 1) 천안외국인공단을 주요 사례로 한 지표, 2)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율 30% 적용
 3) 개발비는 용지비 46.1%, 개발비(간선시설비 제외) 39.2%, 간선시설비 14.7%로 가정

-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육성을 통한 외국인투자 확대
 - 국내에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중 55.3%는 조건 충족시 추가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으며 9.4%는 기업환경의 취약 등으로 국외이전을 고려하고 있음
 -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은 기존 기업의 투자확대에 따른 일자리 확대 및 국외이전 억제를 통한 국내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효과를 지님
- 국내 관련 기업에 대한 간접 효과
 -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2003년도 수출액 45억달러 중 국산 원·부자재 사용액이 5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므로,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 및 투자확대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을 활용한 원·부자재 공급과 임가공의 확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

국토연구원 박영철 연구위원 (ycpark@krihs.re.kr, 031-380-0195)
 류승한 책임연구원 (shryu@krihs.re.kr, 031-380-0203)